

재속 프란치스코회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하느님을 향한 인간 정신의 여정

제 07-10호 2007년 10월 21일 발행

St. Bonaventure Fraternity of the Secular Franciscan Order

월례회: 매월 셋째 일요일 1:30 PM 반모임: 1구역 둘째 일; 2구역 첫째 일 웹사이트: kr.blog.yahoo.com/bonasfo
장소: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예수께서 성부의 참 흠송자이셨던 것과 같이 회원도 기도와 관상이 자신의 온 존재와 활동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 회칙 제8조

순례자의 호홉인 기도와 신심의 정신

복음선포를 위한 순례자의 삶은 정수하는 삶과는 달리 불편, 불안정, 불확실 등 실존적인 위험이 늘 따르는 삶이다. 따라서 이러한 삶은 예수님을 더 철저히 따르고 그분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투철한 목적의식과, 이 목적을 위한 방도와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성 프란치스코는 복음 선포를 위하여 걸으면서도 기도하였고,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자주 한적한 곳을 찾았다.

기도를 존중하나, 의무만으로 느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성 프란치스코의 체험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기도 생활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최초의 그리고 우선적인 표현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삶이 그리스도와 같이 변하는데 있기에 그러하다. 이는 특히 성 프란치스코가 예수님의 사제적 기도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신 데서, 특히 그분의 한없는 사랑에 대해 아버지께 감사 드릴 수 있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인준받지 않은 회규에서 드러난다 (22,41-55; 23,5).

프란치스코 기도의 특징들

첫째, 마음의 감정을 포함시키는 정감적인 기도이다. 이는 성 프란치스코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학에서 나오는 특징이다. 그는 만사 만인,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하느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이는 대단히 긴밀한 인격적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자유롭고 자발적인 기도이다. 성 프란치스코는 기도의 장소와 시간, 방식을 정하지 않았고 거기에 얽매 이지도 않았다. 곧 그는 성령의 움직임에 자신을 온전히 맡길 줄을 이미 체득하고 있었다.

셋째, 관상기도이다. 성 프란치스코의 관상은 성인의 전기작가들이 적고 있듯 그러한 초월적인 관상이 아니다. 프란치스코가 했던 관상은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인격적인 관상이다. 성 보나벤투라는 이에 대해 지혜적 관상 곧, 자신을 비우고 사랑의 길로 하느님과의 완전한 일치를 목표로 하는 관상이라고 설명한다.

넷째, 정신 집중과 고요함과 단순성이다. 성 프란치스코에게 있어서 내적인 고요함의 목적은 내적으로 하느님께만 머물고, 고요에 머물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야기하시는 하느님께 귀기울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외적인 “독방”은 “가슴의 성전”을 위한 봉사에 있었다.

다섯째,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와 감사의 기도이다.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는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께 드리는 지극한 찬미와 감사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섯째, 나그네의 기도이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걸어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자연과 사건에 개방되어 있고 나그네로서 스스로 다가가는 순례자의 기도이다. 구체적이고 외적인 실체를 통해 하느님께 순례하는 가난한 이의 기도이다.

-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에서

서로 받아들임

심리학이 증명하듯이 어떤 집단 소속 일원이 그 집단에 의해 완전하게 그리고 조건없이 받아들여지는 동시에 자기가 그 집단의 다른 이들과 더불어 집단 자체의 이상과 목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이간 집단도 성공하지 못한다. 이것은 크리스천 집단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바울로 사도가 그 비결을 정확하게 설명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인 것같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받아들이시오”(로마 15,7).

만약에 어떤 공동체가 구성원들을 선택할 때 그들의 성격, 나이, 학력, 사상, 취미 등을 따지고 고른다면, 이 단체는 복음적 공동체가 되지 못할 것이고 오래 지탱하지도 못할 것이다. 형제들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각자는 정화와 회개의 수련을 진실히 밟아야 한다. 이 정화란 각자가 자존심과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다른 형제들에게 답답하게 보이는 각자의 습성이나 악의적 경향을 억제하는데 있다.

프란치스코와 글라라는 그 비결을 제시해 준다: 이것은 각 형제, 각 자매를 있는 그대로, 즉 하느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성인은 친히 수하 형제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는 데 실패하여 실망에 빠진 어느 봉사자에게 준 대답에서 이것을 확인한다: “그들이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었으면 하고 바라지 말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항상 형제의 입장에 서서 그러한 경우 남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남에게 해주어야 하는 원칙이다(마태 7,12 참조).

예수님이 형성하신 제자들의 공동체는 다양했고 인간적으로 볼 때 교양이 부족하고 독특한 성격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하느님이 프란치스코에게 주신 공동체를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하면 나은 점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첫 형제들의 성격을 살펴본다면 서로 그렇게 다를 수가 없었다.

예를 들어, 베르나르도와 에지디오, 실베스텔과 주니빠로, 맛세오와 루피노의 성격은 각각 매우 대조적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프란치스코는 이러한 형제들과 같이 기쁘게 살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있었다. 그것은 각 형제의 장점만 보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모든 형제들의 장점을 모아 놓을 때, 이상적인 작은 형제의 모델이 나오는 것이었다.

‘완덕의 거울’에 의하면 베르나르도 형제의 신앙심과 가난에 대한 사랑, 레오 형제의 교양과 단순성과 순결, 안젤로 형제의 친절함, 맛세오 형제의 교양과 사람들에게서 받는 호감과 인기, 에지디오 형제의 관상의 정신 루피노 형제의 부지런함과 꾸준함, 주니빠로 형제의 고통을 견디어내는 인내심, 로디의 요한 형제의 영적 그리고 신체적 힘 - 당대의 가장 유명한 경기 선수였음 - 로제리오 형제의 자비심, 그리고 루치도 형제의 친절한 돌봄 - 이 형제는 한곳에 오래 살지 않은 성격으로 유명했다. 천국 아니고서는 안정된 곳을 찾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만 했음 - 등이 뛰어났다. 이렇게 모든 좋은 덕행을 함께 모을 때, 참된 작은 형제들의 모델이 완성된다.

- ‘프란치스코 소명’에서



프란치스코의 기도방식

성 프란치스코는 끊임 없이 마음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 안에 마음을 두었다(1221회규 22 참조). 성인은 성령의 움직임에 열린 마음으로 자신을 내맡겼기에 구체적인 기도 자세나 방식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은 기도의 때와 양식에도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해 온 기도는 분명 포괄적으로 하느님을 살며 항상 기억하는 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기도의 양식은 회원과 형제회의 기도의 질을 높이는 데 한 몫을 하므로 성인의 정신에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식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질 때까지
화를 풀지 않으면 안됩니다.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에페 4,25-27)



복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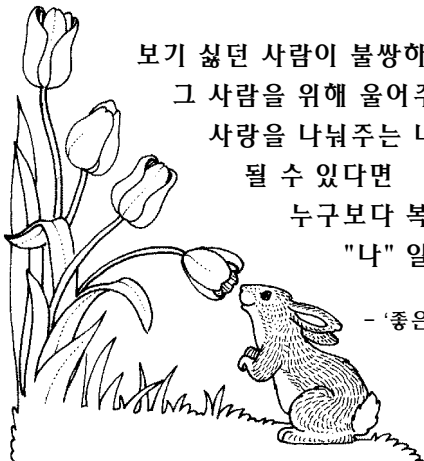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그 인연 안에서 함께
생사고락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게 아무런 해를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미워지고 보기 싫어지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시기하고 좋지 않은 평가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해불양수(海不讓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바다는 강물을 물리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은 깨끗한 물이라고 해서 환영하고
더러운 물이라고 해서 물리치지 않습니다.
물은 그 어떤 환경을 구분하지 않고
자기에게 오는 모든 물은 다 받아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서 정화를 시켜 나갑니다.
만약 우리들의 삶이 물과 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분명 성인이 되겠지요?



보기 싫던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져서
그 사람을 위해 울어주고 기도해주며
사랑을 나눠주는 나 자신의 삶이
될 수 있다면
누구보다 복된 사람은
"나" 일 것입니다.

- '좋은 글' 중에서

인생의 벼이 그리워지는 계절

그대여 살다가 힘이 들고
마음이 허허로울 때 작고 좁은 내 어깨지만
그대 위해 내 놓을게요

잠시 그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으세요
나도 누군가의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음에 행복해 하겠습니다

인생의 여로에 가끔 걷는 길이
험난하고 걸어 온 길이 너무 멀어만 보일 때
그대여 그대의 등위에 짊어진
짐을 다 털어 줄 수는 없지만
같이 그 길을 동행하며 말 벼이라도
되어 줄 수 있게 그대 뒤를 총총거리며
걷는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무엇 하나 온전히 그대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서로 마주 보며 웃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 하나 나눈다면
그대여 그것 만으로도 참 좋은 벼이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치며 서로 비켜가는
인연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왠지 서로가
낮이 익기도 하고, 낮이 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같이 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더 남았겠습니까?

인생의 해는 종천을 지나
서쪽으로 더 많이 기울고 있는데
무엇을 욕심내며,
무엇을 닦아겠습니까?

그냥 주어진 인연 만들어진
삶의 테두리에서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며
뜨거운 눈물 한 방울 흘릴 수 있는

따뜻한 마음 하나
간직하면 족한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람처럼 허허로운 것이
우리네 삶이고 그렇게 물처럼 유유히 흐르며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서로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며
서로 등지고 살일이 무에 있습니까
바람처럼 살다 가야지요
구름처럼 떠돌다 가야지요.

- '좋은생각' 중에서

보나벤투라 형제회 소식난

- + 대림 피정이 트라이앵글 아씨시 성당에서 11월 25일 9시부터 있겠습니다. 8:30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 + 구역 1,2반 합동 구역모임점 야외 미사가 11월 4일 버크 공원에서 있으며 10시에 미사가 시작되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만약 비가 올 경우 변경이 있겠습니다.
- + 10월3일(수) 와싱턴 Franciscan Monastery의 사부님 축일 전야제에 한테레사, 강마리아 (한국말로 기도함) 자매가 참여하셨습니다.
- + 사정상 자기 구역의 구역모임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다른 구역의 구역 모임에 참석하도록 합니다.
- + 강요한/스텔라의 장남 강무림 마르티노와 민지은 글라라의 결혼식이 10월 12일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주님안에서 성가정을 이룰수 있도록 기도하며 축하드립니다.
- + 매월 첫 일요일 김병두 신부님께서 주관 하시는 양성 교육이 MD 수도원에서 있겠습니다.

기도 중 기억합니다 ...

- + 병중에 있는 메릴랜드의 이레네 자매를 위해 ...
- + 김안티모 신부님께서 영국에 잘 도착하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
- + 보나벤투라 형제회와 회원 가족들을 위해 ...
- + 세계의 평화를 위해 ...

10월 월례회 시간표

1:00 PM - 다과
1:30 PM - 양성 교육
3:00 PM - 월례회/미사

✂ 미사성가: 지침서 ✂

입당: 65번 천상의 어머니
봉헌: 32번 평화를 주옵소서
성체: 42번 천사의 양식
마침: 6번 우리는 형제로

제1독서: 배알버트 제2독서: 배엘리사벳
미사해설: 이아모스

10월 본명축일을 축하합니다

1일: 하진순 데레사
15일: 한기남 데레사

10월 간식담당: 박상태, 박세종, 조은자

11월 간식 담당: 한기남, 한만섭, 김옥순

.....

"그리스도인 생활이란 자신과의 끊임없는
투쟁 이외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 오상의 비오 신부 -

.....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재속 프란치스코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회장: 한기남 703-425-9445 man5ki@yahoo.co.kr
부회장: 강동훈 703-585-2700 johnkang52@hanmail.net
서기: 김미경 703-680-0274 talmadge01@msn.com

회계: 조순우 703-759-9429 swcsfo@yahoo.com
양성: 강옥희 703-440-8010 margarita222@daun.com
영적보조: 조안드레아 OFM